



고난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하려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며 배운점이 있는지, 우리가 타인을 도울때 어떤점을 느끼는지 돌아보거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너무나 적고 거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끼니를 거르며 살아 간다는걸 생각해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님은 친구들과 음식나누기를 즐겨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온 시대처럼, 우리는 친구들과 타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담소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초대해서 그들이 속할 식탁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며, 그들의 굶주림이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드실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수천명의 군중을 먹이시기 위해 떡과 물고기를 몇배로 늘리는 기적을 행했는지 아니면 그저 친구들을 위해 떡을 나누었는지에 상관없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것들을 전세계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40일간의 사순절기간동안, 서로 아주 다른 가족들, 그러나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가족들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 그것이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건강부터 학교에 갈수 있는 힘까지 준다는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 그 배고픔이란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생각해봤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트린, 이반, 그리고 마리아와 그들의 가족에게서 배운점들을 가족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망이 가득한 이야기들은 사순절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새겨본 의미들은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많은 삶을 바꾸게 될것입니다.